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GENESIS
JOSUE
LUIS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CAMILA
JENNSY
LIA
ORIANA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Enjoy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Increase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Global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Harvest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배풀어주는 교회



Training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뉘를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21권		Vol. 5 No.21		5.24.2026	
여는 기도		김용현 전도사			
Opening Prayer		Samuel Kim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장승현 성도			
Representative Prayer		Seunghyun Jang			
말	씀	주의 여종의 아들		유제성 목사	
Sermon		시편 116편 1~5절, 16절		Rev. Justin Ryu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봉헌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김용현 전도사			
Announcements		Samuel Kim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유제성 목사			
Benediction		Rev. Justin Ryu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5/24	5/31	6/7	6/14	6/21
1부	—	—	—	이중록	김용현
2부	장승현	조주현	김수경	김대환	문하영

1.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 증거해주신 유제성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예배안내

일시: 5월 31일 (주일)
이수호 목사님(LA 올림픽 장로교회)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주일 1부 예배 안내

6월 14일(주일)부터 오전 9시에 1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담임목사 한국 동정

일시: 5월 18일 (월) ~ 6월 6일 (토)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비전 트립

일시: 6월 말
장소: 시애틀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드릴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정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	6일	최연익 집사	18일	김준서 성도
	11일	왕성균 집사	20일	김아론 집사
	13일	이지훈 학생	24일	황유민 성도
	16일	임아인 어린이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요한복음 16:16-24	요한복음 16:25-33	요한복음 17:1-5	요한복음 17:6-19	요한복음 17:20-26
Sam Kim	Grace Kim	이중록	임성호	Sam Kim

5.24.2026

‘기대 불일치’의 함정

가끔씩 우리는 미디어(SNS)에서 ‘인생 맛집’이라 극찬받는 레스토랑을 찾아갑니다.
수백 개의 별점, 화려한 사진, “인생 최고의 식당”이라는 후기들에 이미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긴 웨이팅 끝에 드디어 마주한 음식 한 접시에 사진을 찍고 한 입 먹는 순간 고개가 기우뚱해집니다.
“맛있긴 한데… 이 정도로 좋을 설 일인가?”
분명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밀려오는 묘한 실망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다 칭찬하는 곳에서 역설적인 쓸쓸함을 느끼는 걸까요? 답은 음식의 맛이 아닌,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소비심리학에서는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tion Disconfirmation Theory)’으로 설명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추락은 깊다>

리처드 올리버(Richard Oliver) 교수가 정립한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후 느끼는 만족도는 ‘경험 전 가졌던 기대치’와 ‘실제 경험’ 사이의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이 기대보다 좋으면 ‘긍정적 불일치’가 일어나 만족하지만, 반대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부정적 불일치’가 발생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맛집에 실망한 이유는 그 집의 음식을 못 해서가 아니라, 방문하기 전 읽었던 수 많은 리뷰가 우리의 기대치를 우주 끝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맛이 기대치(100)를 넘지 못하고 80점에 머무르는 순간, 그 20점만큼의 차이가 곧 ‘실망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보 과잉 사회가 만든 ‘만족의 실종’>

우리가 살고 있는 ‘넘쳐나는 리뷰 사회’는 이 기대 불일치의 함정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보지 않은 곳의 인테리어, 메뉴의, 심지어 식감까지 고스란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확률 역시 함께 줄어듭니다. 미리 학습된 정보는 우리의 뇌에 강력한 기준점을 만들며, 가보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최상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신선함과 감동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리뷰 사회가 도리어 우리에게서 ‘뜻밖의 발견’이 주는 기쁨(Serendipity)’을 앗아간 셈입니다.

<리뷰 사회에서 현명하게 만족을 찾는 법>

첫째, ‘리뷰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소비하기 전, 모든 정보를 살살이 파헤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치와 최소한의 평점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겨두면 약간의 불확실성을 허용할 때, 예상치 못한 좋은 경험이 주는 ‘긍정적 불일치’의 쾌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주관적 취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은 맛집이 나에게서는 그저 평범할 수 있고, 동네의 허름한 백반집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점이라는 숫자에 내 미각과 취향을 동기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